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깊어가는 가을
시원한 바람 한 모금에
티끌 없이 맑은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며
만추의 낭만을 담아봅니다.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행복한 경북을 위해
도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CONTENTS

VOL. 124

2020. AUTUMN



- 07 전반기 주요성과
- 10 의장단 소개
- 14 상임위 조직도
- 16 나의 포부
- 23 위원회 활동
- 32 5분 발언
- 38 도정질문
- 41 의정소식
- 45 의회사무처 소식
- 46 포커스 온
- 54 의원톡톡(Talk-Talk)
- 56 처리 의안
- 65 당신께 묻습니다
- 75 의회 아카이브
- 80 의회 한 토막
- 82 쉼터
- 83 우리 함께
- 85 의정 안내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민인기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발행일 2020년 10월

주 소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 화 054-880-5144

기획·디자인·사진·제작 (주)스토리파크



경상북도 의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의회소식지 신청

구독신청 : council.gb.go.kr

※ 구독 취소 시 경상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연락(054-880-5144)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지난 8월 26일에서 9월 8일 동안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반기 의회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또다시 전국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노력해주신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노고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경북은 지금의 위기 상황 또한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이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비롯한 국비확보 등의 현안사업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의원들 모두가 함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도민들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대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민생시책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세심하게 살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0만 도민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동리목월문학관 | 경북 경주시 불국로 406-3

2006년에 개관한 동리목월문학관은 한국문단의 큰 별과 같은 인물인 김동리와 박목월을 기리는 문학관이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김동리 작가는 초기 소설인 「무녀도」, 「화랑의 후예」 등에서 고향인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집필했다. 시인 정지용으로부터 '북의 소월, 남의 목월'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 박목월 작가는 「나그네」와 같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그의 고향인 경주 건천읍에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동리목월문학관은 토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전반기(‘18.7월 ~ ‘20.6월)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59일 16회 회기

조례안·예산안



조례안 304건, 예산안 231건
총 535건

10대 후반기 대비 증가율

10%

도정질문



48명의 의원이
210건 질의

10대 후반기 대비 증가율

80%

5분발언



55명의 의원이
84회 발언

10대 후반기 대비 증가율

90%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283건, 건의·촉구 696건, 제도개선 31건,
수범사례 전파 8건 등
총 1,018건 감사

10대 후반기 대비 증가율

50%

전반기 주요성과

Major achievements in the first half

01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원내교섭단체 조례를 제정
을의결」을 비롯한 10여건의
의결



1952년 개원한 이래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경북도의회 의정 역사상으로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19.1월)·운영하여 소통과 협치에 의한 원내 의정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02

「경상북도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를 제정
을의결」을 비롯한 10여건의
의결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 국외연수제도를 조
례를 제정해 외부통제를 강화했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폭 개정 등
도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왔다.



03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
을의결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
고, 지역대학(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
동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자
문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세미
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전반기 주요성과

Major achievements in the first half

04

‘현장소통DAY’ 추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현장소통DAY’를 추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

05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는 적극 대응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토 침탈에 대응한 성명서 및 규탄서를 발표해 독도 관할 지방의회로서의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06

해외 친선교류 활동도 적극 추진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사하공화국의회, 중국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등 3개 의회와 새롭게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해외기관 초청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해 2019년 10월에는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향후 인적·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전방위적 해외친선교류 확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우호협력 범위를 북방으로 크게 확장했다.



전반기 주요성과

Major achievements in the first half

07

타시도 의회와의 상생협력



2019년 2월 대구시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 대구경북 현안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고, 매년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행사로 정책 교류를 계속해 왔다.



08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

경북도의회는 도내 23개 시·군의회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18.12월),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19.6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19.8월) 개최 등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왔다.

장경식 전반기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의 결권 강화 촉구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아젠다를 발굴해 건의하였다.



의장단 소개

의회와 집행부의 올곧은 협력

고우현 의장

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도정

김희수 부의장

소통과 동행으로 함께하는 의회

도기욱 부의장



Introduce

경북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더 멀리 도약할 의장단을 소개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올곧은 협력!

고우현 의장 | 문경 / 국민의힘



제11대 후반기 의장 당선 소감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제 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인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가 기나긴 논의와 협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민의 대표로서, 지역민간의 갈등 및 지역민과 집행부간의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 도의회가 가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산업의 근간이 될 핵심 사업이니 만큼 계획대로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목표와 포부

대내·외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연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이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도 코로나19 대응,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도민들과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스스로에게도 후회 없는 2년이 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의회를 이끌어 나갈 방향

후반기 의정의 슬로건은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입니다.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는 결국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입니다. 도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도민이 원하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단 소개

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도정

김희수 부의장 | 포항 / 국민의힘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당선 소감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은 모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가 하는 활동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할 것입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를 통해 도민을 우선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9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해 아직 중앙정부에 많은 부분 귀속된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지방 의회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북도의회 역시,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한 분 한 분 도의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도의원 60명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셔서 경상북도 도의회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매진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와 포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도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제 자리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소통과 동행으로 함께하는 의회

도기욱 부의장 | 예천 / 국민의힘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당선 소감

우선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도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도민들이 지방정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불편한 점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는 좀 더 세밀하게 도민들의 안녕과 어려운 점을 살펴주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지속적인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언론과 함께 SNS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정활동의 핵심은 시스템 개편입니다. 후반기에 관련 부서의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해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여 지역소식과 지방정치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지역 언론이 함께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

Reorganize!

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원내 구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60명 의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황

의장단



의장 고우현



부의장 김희수



부의장 도기욱

의회운영위원회(15명)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 김상조



위원 김영선



위원 김준열



위원 남영숙



위원 박미경



위원 박영환



위원 박판수



위원 박현국



위원 신호광



위원 이동엽



위원 이선희



위원 이철구



위원 정세현

기획경제위원회(11명)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 김득환



위원 김상현



위원 김수문



위원 박영서



위원 박채아



위원 방유봉



위원 이종열



위원 이춘우



위원 이철구

행정보건복지위원회(9명)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 김성진



위원 김영선



위원 나기보



위원 도기욱



위원 장경식



위원 조주홍



위원 홍정근

문화환경위원회(9명)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 이동엽



위원 광경호



위원 김대일



위원 박태춘



위원 박판수



위원 윤승오



위원 윤창욱



위원 이수경

농수산위원회(11명)



위원장 남진복



부위원장 신호광



위원 남영숙



위원 남용대



위원 박차연



위원 박현국



위원 이재도



위원 임무석



위원 임미애



위원 정근수



위원 정영길

건설소방위원회(10명)



위원장 박정헌



부위원장 박영환



위원 김시환



위원 김준열



위원 김진욱



위원 박권헌



위원 박승직



위원 박창석



위원 오세혁



위원 한창화

교육위원회(9명)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 박미경



위원 권광백



위원 김희수



위원 박용선



위원 배한철



위원 안희영



위원 정세현



위원 최병준

33

권위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의 문을 열다

99

안희영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 예천 / 국민의힘

Q _ 위원장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번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기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후반기 의회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낍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운영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Q _ 제11대 후반기 위원장으로 하시고 싶은 역할이 궁금합니다.

A

스스로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성을 가지고 동료의원들과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주는 자세로 의회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도의원 60명 모두가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뒷받침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이나 예산편성 심사, 도의회 운영방향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 교섭단체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개발 연구용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Q _ 하고싶은 말씀은?

A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후에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도민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6

도정의 중심에서 도약을 시작하다

배진석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 경주 / 국민의힘

Q _ 위원장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A

기획경제위원회는 일자리, 경제, 민생 등의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대 경북도의회부터 기획경제위원회와 인연이 깊은데요, 그만큼 애정도 남다릅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면서 경북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는 것이죠. 제가 도의회에서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데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지 청년일자리 정책과 같은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기획경제위원회가 있었고 재선 의원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Q _ 하반기 기획경제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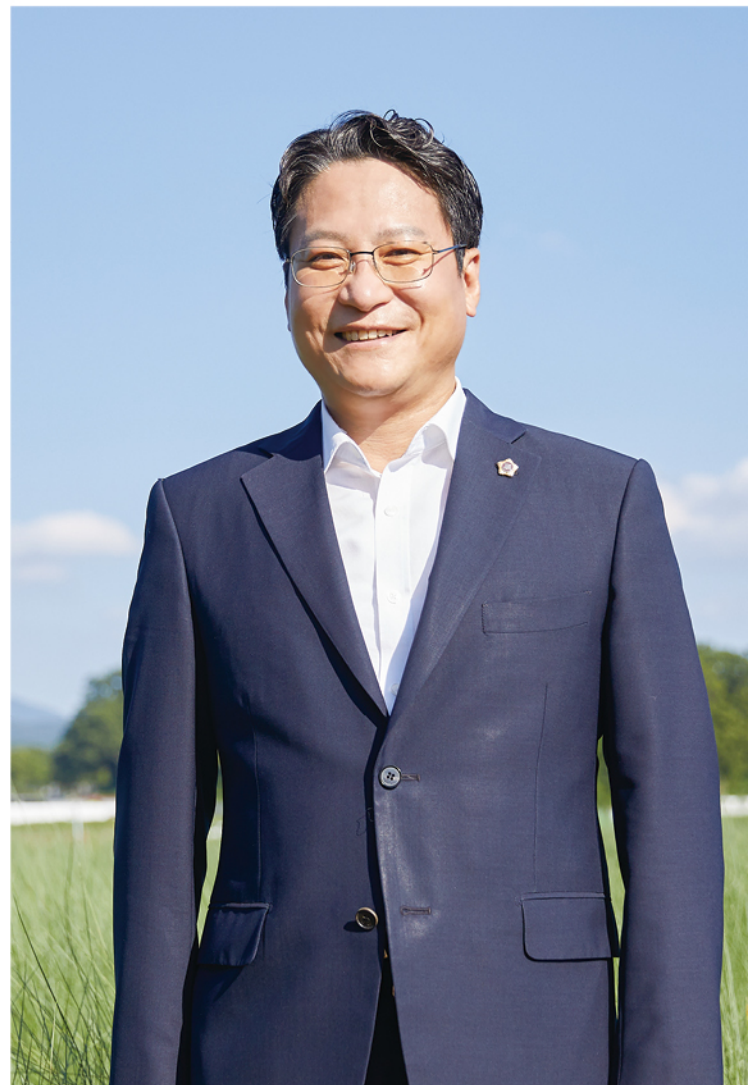
코로나19에 태풍피해까지...민생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늘 어려운 것이 서민 경제이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정책들이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빨리 적용되고 있는지 등, 이러한 오차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_ 하고싶은 말씀은?

A

첫 번째로,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제가 부지런하고 힘들수록 도민의 생활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모인다면, 괄목할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



33

풍부한 현장경험, 도민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 될 것

99

김하수 위원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청도 / 국민의힘



Q _ 위원장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현장경험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높게 평가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회복지의 특성과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행정 선진화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9명의 훌륭한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_ 하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궁금합니다.

A

대외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지표를 통계관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지표의 개발과 수집·통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Q _ 하고싶은 말씀은?

A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 일상생활이 영위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역학조사관, 음압병상 등을 확대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6

문화예술활동 지원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것

99

황병직 위원장

문화환경위원회 / 영주 / 무소속

Q _ 위원장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A

경상북도의회 60명의 의원 중 대다수가 소속 정당이 있는 가운데 무소속으로 위원장 선거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특정 당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을 뛰어넘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상북도 문화·환경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더 배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_ 위원장으로써 앞으로 박차를 가할 목표는

A

문화환경위원회는 300만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도민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같은 생활이 힘들어진 부분을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정적 구조조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깊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Q _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민원인이 문제가 해결되고 웃으면서 인사를 전하실 때입니다. 도민 중에는 정말 사소한 불편 정도는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그 불편함을 품고 살아가실 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편함이 모여서 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소한 불편함에 귀 기울이기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함께 걸어가는 도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33

경상북도 농어업의 새로운 장을 열다

99

남진복 위원장

농수산위원회 / 울릉 / 국민의힘

Q _ 위원장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A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농어촌 현실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농·어업인들이 허리 펴 날이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내 농어촌이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북 농어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_ 제11대 후반기 위원장으로 하시고 싶은 역할이 궁금합니다.

A

실질적으로 농수산업에 산업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노력 중인 농어업의 6차 산업화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위주의 경영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생산과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업 전문 CEO 양성, 청년 창업농 활성화, 품질 고급화 등으로 농도 경북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Q _ 하고싶은 말씀은?

A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방안도 있는 법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고령화, 지방소멸, 자연재해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숏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늘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고, 모두의 힘을 모아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며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왔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농수산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에 300만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따듯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66

균형발전과 안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 고령 / 국민의힘

Q _ 위원장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A

당선소감 이라기보다는 당선각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시기에 건설소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북 역사상 최대의 건설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추진과 도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도내 SOC사업을 소관 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정발전에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Q _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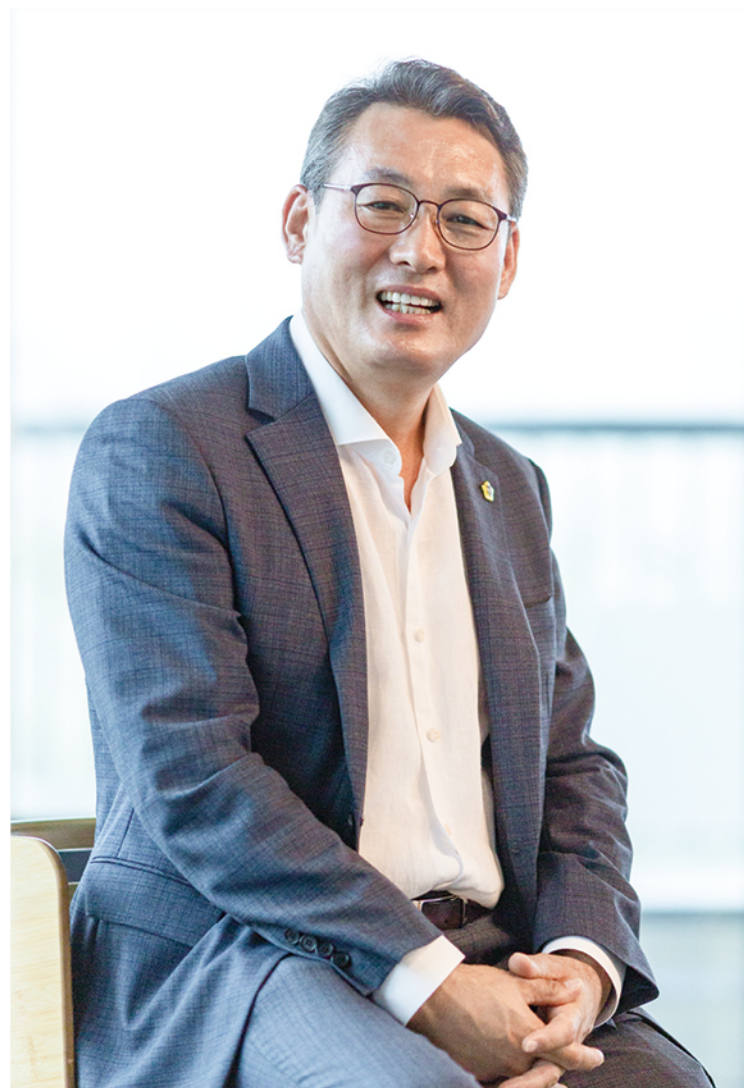
A

두말할 것도 없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생산유발 36조원, 부가가치 유발 15조원, 취업유발 40만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에 대구경북 재도약의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신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협치의 밑도를 높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함께 최우선에 두고자 합니다.

Q _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A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신공항이전사업을 비롯한 대형 SOC사업 추진 시 집행부가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관내 소방서가 없는 영양·군위·청송·봉화·울릉 5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재난상황 발생 전에 철저한 대비로 도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33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현일 위원장

교육위원회 / 경산 / 국민의힘



**Q _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과 변화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교육 여건 개선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에 충실하며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Q _ 교육위원회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교육현안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정책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행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다변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실무 능력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Q _ 앞으로의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학교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방역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기 청정기와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학교 방역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 특수교육 지원 사업 확대와 다문화 학생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 발명체험관 및 메이커교육관을 개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6일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제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60명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도의회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주요정책이나 도의회 운영방향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져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희영 운영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이다. 우리 지역이 혼



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도록 경북도의회가 발로 뛰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가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통합신공항 건설,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체 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상생·화합하는 의회,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제11대 후반 기 도의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 기획경제위원회 •

민생현안에 대한 답은 현장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7월 23일~2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교통서비스 향상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한 의정활동으로, 향후 2년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와 지역의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23일 첫 일정으로 지능형 교통 체계를 도입·운영 중인 경주시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로부터 주요현황과 지능형 교통 체계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능형 교통체계 도내 확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해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현장과 주요 정책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도민의 행복이 우선하는,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의정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1대 후반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첫 소통행보로 감염병전담병원인 포항의료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원 현황과 코로나19 대응상황, 향후 대응방안 등을 청취하고, 일선 공공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격리음압병동 등 코로나19 집중 치료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

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과 밀접한 조례안,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김하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이며, 도민의 행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에 둘 것이다.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화환경위원회 •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문화·환경·체육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도민들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음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첨단장비 보강 등 시설 및 운영 인프라 강화를 주문하고, 다양한 분야 콘텐츠를 융합한 내실있는 지역 축제 추진과 도내 전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 보전·관리 및 대구취수원 이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황병직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산업 모든 분야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 농수산위원회 •

업무보고로 하반기 의정활동 시작

농수산위원회는 하반기 원 구성이후 첫 번째 공식 의정활동으로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7일~28일 양일간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통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진행하던 출연기관(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독도재단)의 업무보고를 하반기 농수산위원회 출발에 맞춰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지방소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현재 우리 농어촌은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하반기 농수산위원회는 도내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구성된 하반기 상임위원회 중 가장 먼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에 이어 8월 27일 도내 16개 농축산인단체 연합회인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농정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 건설소방위원회 •



재난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



건설소방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집행부 소관부서인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반기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분야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한, 태풍 '바비'에 대비한 종합대책 상황 확인을 위해 8월 26일 1차 본회의 종료 후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태풍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정현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집행부에 대해 “코로나 19 사태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교육위원회 •

추경예산,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교육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7억 원이 감액(2.4%)된 4조 6,710억 원으로 교육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조현일 위원장과 박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제2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조 6,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7,837억 원보다 1,127억 원(△2.4%)이 감액되었습니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온라인 수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 확보



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최병준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경북도의회는 8월 2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곽경호 의원, 부위원장에 정근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고, 위원에는 김성진 의원, 김시환 의원, 박영서 의원, 박창석 의원, 이수경 의원, 임미애 의원, 정세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곽경호 위원장은 “도민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과 공정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이 바라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09. 08.)

경북도 감염병 검사 역량 강화 촉구

박태춘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비례



코로나, 메르스 등 감염병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의심환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신속대응이 사태 해결의 열쇠**인 만큼, 본 의원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경북도는 보건연구부 18명의 인력이 코로나19 확산이후 지난 **2월부터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체의뢰 건수의 1/3 수준만 처리되었고, 그동안의 피로누적은 물론 인력과 공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검사장비를 보충하고 시료의 안전과 오염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전문 연구동 증축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충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4

이렇게 된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의 검사기능은 하루 200여 건에서 하루 1,000건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향후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의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09. 08.)

SOC 예산 재정확대 및 지역건설 산업 살리기 촉구 관련

박영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영천



1



코로나19는 건설경기 전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지역형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은 생산, 취업, 고용 유발효과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건설업 활성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대표적 경기 부양책**으로 등장했습니다.



2

경북은 건설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SOC사업의 과감한 예산투입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 가량 늘린 26조원을 편성함으로써, SOC 예산 역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

2019년 기준 경북도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12.82%에 못 미친 12.29%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주의 채무비율 25%나 재정위기단체 심각 채무비율 40% 요건을 월등하게 하회하는 등 **확장적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안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4

SOC예산 재정확대와 조기건설투자로 경기회복과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대해 이철우 지사님께서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도시 분야 시책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반영한 2021년도 본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09. 0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이종열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영양



본 의원은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부족했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도권 확보 실패입니다. ...**군위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고, 이에 반발한 의성군이 또다시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구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2



둘째, 갈등관리 부재입니다. ...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할 때까지 6개월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전혀 두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갈등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3



셋째, 국책사업 선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경북도에서 도내에 다른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조직적·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학습이 되어,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장밋빛 청사진 보다 23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방안과 **실행가능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3백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09. 08.)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

김상조 의원

행정안전복지위원회 / 구미



1



2018년 경찰청의 범죄발생 장소 통계에 따르면 **유원지, 학교, 주차장,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42,395건으로 2017년 대비 9,02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기계적 감시’기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상해나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도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과 경찰·소방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2019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시간을 보면 전체 안전사고 5,094건 중 선생님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인 점심·휴식·청소시간 및 행사시간에 2,130건으로 **전체대비 41.8%나 발생**하였습니다.



3



4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히 조치하고 학교폭력 및 외부침입자 등에 의한 범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 운동시설, 계단 및 복도,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학교 건물 주변의 우범지역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소방을 연계하는 ‘경북교육청 학교안전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09. 08.)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한 경북도의 역할 관련

정세현 의원

교육위원회 / 구미



1



국가경제의 저성장, 지역간 재정불균형도 심각한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재정안정화와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시·군간 재정상황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2

올해 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는 9.2%에 불과합니다.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시·군 평균이 227만원** 인데 비해, **구미시는 28만 원**입니다. 거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볼 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국정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도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경북도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4

둘째, 도와 시·군 간의 자원분담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도비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도비:시비, 7:3을, 5:5로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09. 08.)

경주 감포항 친수공간 월파 피해 대책

박차양 의원

농수산위원회 / 경주



1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전국을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의 무시무시한 월파로 친수공간 일대가 쓸대밭이 돼 버렸습니다. 주택 및 상가침수 37가구에 이재민56명 부상8명, 차량파손 8대, 배후지의 블럭 유실 35,000㎡, 화장실1동 등 **그 피해액은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감포항 정비 사업은 어선안전 수용과 해양관광,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에서 **총사업비 452억 원으로 2010년에 착공해 2018년 1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결과 오히려 저지대가 아님에도 저지대로 전락하여, **소금물이 온 동네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3

본 의원은 피해상황과 관련자료,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주장을 종합해 봤을 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봅니다. 콘레이 때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C값**이었습니다. 7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조성비를 예비타당성 심사를 안 받기 위해 줄인 데 있습니다.



4

공직자는 공수를 부려서도 안되며 편법을 써서도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 **경북도는 해안선 537km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 계획성 있게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318회 1차 본회의 8.26.



T

Thema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대책, 기초 지자체 간 경계지역 분쟁발생에 대한 경북도의 조정역할, 도내 이차전지산업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견해는?

Question

Q

지난 2016년 형산강 재첩 등 어패류에서 수은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내수면 어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예산지원 등, 중금속 오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는 개최되는 87개의 축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잘되는 축제는 더 잘 되도록 미흡한 축제는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초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중재자, 조정자로서 참여해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할 책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지역 간 분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분쟁해결 전담부서 신설 등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선제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차전지 배터리 특구인 포항지역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특성화고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포항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대송중학교를 인근의 중학교와 통합하고 기존 대송중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2차전지산업 특성화고로의 신설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18회 1차 본회의 8.26.



T

Thema

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대책, 공용버스터미널 지원대책,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대책은?

Question

Q

거대리 일대 농경지 상습 한해(旱害)피해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대상지구 순위 결정에서 거대지구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것과, 신평댐 재개발사업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포기 사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 실태조사, 터미널 운영 지원 방안,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도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경북은 28개 세부지표 중 24개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도정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수립과 정책연구협의체 구성운영 등 도민체감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18회 1차 본회의 8.26.



T

Thema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피해대책 방안,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계획,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속대책, 기상재난 대비 저수지 관리대책, 경주한국어교육센터 규모 확대에 대한 견해는?

Question

Q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대한 대처상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혁신 원자력연구단지를 해안지역과 도심권에 분리 배치하여 양성자 연구와 함께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의 조속한 준공,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에 대한 정부계획(안)의 조속한 확정·시행, 또한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신라왕경 복원사업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관내 노후 저수지의 시설물 전면 개량 및 준설·보수·보강의 필요성과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미래의 경북 다문화 학생 수요에 발맞추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



0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경북도의원 11명 수상

경북도의회는 6월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수상의원은 이종열, 도기욱, 박영서, 박차양, 이춘우, 신호광, 임무석,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조현일 의원 등 11명이며, 재선이상 3명, 초선 8명으로 재선이상 의원의 경륜과 초선의원의 열정이 조화되었다는 평가이다.



02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경상북도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중간 보고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는 7월 2일 도의회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상북도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착수·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향후방향과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03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경북도의회는 7월 3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고우현(문경2, 국민의힘, 4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김희수(포항2, 국민의힘, 3선)의원과 도기욱(예천1, 국민의힘, 3선)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04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경북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희영,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 문화환경위원장 황병직, 농수산위원장 남진복,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현, 교육위원장 조현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정소식



05 호국원 참배하고 하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경북도의회는 7월 8일 국립 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하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본격화 했다.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 지역구 의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으로 참배가 이어졌다. 참배를 마친 후 도내 주요 기관 및 언론사 등을 방문해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1대 하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0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경북도의회는 7월 14일에 발표된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6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고우현 의장은 7월 13일 문경~김천(60KM) 구간을 디젤열차로 1시간가량 이동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차 탑승 행사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경, 상주, 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08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는 7월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최종 시한일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호소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정소식



09 산업보안정책연구회, '경북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보안정책연구회는 8월 3일 도의회에서 '경북지역 산업보안실태 및 보안역량 육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1일 산업보안정책연구회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연구용역의 향후방향과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10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는 9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11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세미나 개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8월 5일 포항시 일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12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에 수해피해 복구물품 보내

경북도의회는 8월 18일 도의회 전정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남도의회에 1천만 원 상당의 피해복구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물품지원 의사를 전남도의회로 전달하는 한편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풍기 100대와 세신용품 567세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정소식



13 제11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예결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로,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새로 구성된 상임위별로 당면 현안사항 보고와 각종 민생조례안을 심의했다.



14 정책연구의 중심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경북도의회는 9월 8일 2020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정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15 정책 발굴 위한 연구단체 활동 이어나가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와 문화관광 일자리연구회는 9월 8일 각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경상북도의회가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이들 연구용역은 주제별로 경상북도의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조사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했다.



16 코로나 2단계에 방역수준도 2단계로 올려

경북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속에서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에서 방역의 수준도 2단계로 높여 대응해 나가는 등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다. 먼저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코로나 2단계 실내행사 제한인원인 50명 이내로 하면서도 회의진행의 원활성을 위해 안전처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참석인원을 배분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01

의회사무처 소식

상반기 퇴직 공무원 송별식



6월 26일, 의회사무처 상반기 퇴직자들의 송별식을 가졌다. 이번 송별식에는 전종근 총무담당관, 김홍석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임명철 주무관의 퇴직을 맞아 그간 함께했던 동료 공직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동료 직원들은 그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퇴직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상반기 의회 전입자 임용장 수여



7월 16일,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16명에 대해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민인기 의회사무처장은 이날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직원들을 환영하고 앞으로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했다.

02

의회사무처 소식

활기를 찾은 폐철도처럼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포항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의원

Q. 포항에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어디 이신가요?

A. 포항은 경상북도 제1의 도시로 철강산업, 해양 및 관광 자원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항철길숲'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 100년간 기차가 달리던 남구 효자역과 옛 포항역 사이 4.3km 구간이 2015년 KTX포항역 이전으로 폐철도가 됐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던 이 철도는 낙후 지역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지만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경시설과 음악분수, 스틸아트 작품 등을 설치해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도시재생과 녹색 생태도시 조성의 모범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입니다.

Q.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A. 포항철길숲의 길이가 약 7km 정도 되다보니 왕복으로 걸으며 운동을 자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

게 되고 대화도 나눌 기회가 생깁니다. 저에게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통로인 셈이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소통할 수 있게 잘 관리되고, 예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앞으로는 어떤 의정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A.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이 신경썼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도전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젊다는 이점을 살려 청년 일자리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공대와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 포항의 젊은이들이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 청년들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함께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



전통이 숨 쉬는 안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동 / 국민의힘

김성진
의원

Q. 의원님만 알고 계신 지역의 명소나
자랑거리를 소개해주세요.

A. 잘 지켜져 내려온 역사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며 상
생하는 도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최
근에는 고택을 관광산업에 활용해 성공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무형적 역사자산을 유형화 시켜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부부의 사랑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월영교가 있습니다. 월영교는 주변 안동호와 어
우러져 자아내는 풍광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처에 카페나 맛집이 형성되면서 젊은
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 이곳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요?

A. 2002년 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월영교가 공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리가 부식되어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

었습니다. 강 위에 다리를 놔둬서 썩었는지, 나무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실 원인을
밝혀내고자 안동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
가 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시공업
체로부터 3억여 원을 변상 받았고, 이후 보강공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

Q. 최근의 활동들과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A.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있는 안동’이란 타이틀에 걸
맞도록, 도민뿐만 아니라 안동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역사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대
후반기 의정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중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방
역, 검역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
지,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지는 않은 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
토하여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칠곡의 젓줄, 낙동강 호국문화의 젓줄이 되다

문화환경위원회
칠곡 / 국민의 힘

곽경호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칠곡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호국의 도시 칠곡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소가 바로 '호국의 다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낙동강을 사수해야 했습니다. 낙동강이 관통하는 칠곡군은 그만큼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던 전장이었습니다. 그때 인민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파괴했던 다리가 지금의 '호국의 다리'입니다. 덕분에 국군은 낙동강을 지킬 수 있었죠. 단순히 오래된 낡은 다리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호국과 희생정신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역사의 장인 셈이죠.

Q. 추억 속 낙동강과 지금의 낙동강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A. 칠곡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 예전에는 낙동강이 물놀이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목욕도하고 자주 놀았습니다. 그럴 때 포탄 파편들이 많이 나오곤 했죠. 그럼 그걸 주어와서 엿장

수를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또 예전만하더라도 장마나 태풍 때 낙동강 인근 마을은 수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칠곡보가 생긴 덕분에 수해가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조금만 가물어도 농경지 지하수가 다 마르곤 했었는데 칠곡보 덕분에 1년 내내 농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장이었던 낙동강이 12만 칠곡 국민들의 젓줄이 되었습니다.

Q. 칠곡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칠곡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A. 현재 저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호국의 다리'처럼 칠곡의 문화 역사를 간직한 명소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칠곡군은 1960년도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복직 거림은 찾기가 힘듭니다. 관광산업과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정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



푸른 바다, 청정울진 가능성을 원동력으로

농수산위원회
울진 / 국민의힘

남용대
의원

Q. 관광명소로써 울진은 어떤 곳인가요?

A. 울진은 지리적으로 쉬이 접근하기 힘든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어 예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습니다. 덕분에 청정 그대로의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진읍, 북면, 죽변면, 금강송면에도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의 덕구계곡에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600년이 넘는 금강소나무 원시림이 형성되어 있어 놀라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언택트 여행'이 필요한 요즘, 울진만큼 완벽한 여행지도 없을 것입니다.

Q.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지요?

A. 숲과 바다라는 훌륭한 자연경관 외에도 울진에는 다양한 전시·체험·교육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 전시교육기관으로 해중 전망대, 전시실,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색 있는 공간입니다. 이미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해양 체험교육 분야에 큰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이 단순히 관광객의 일회성 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체험 교육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월에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립해양과학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해양아카데미'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발전가능성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 또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워지는 경주

농수산위원회
경주 / 무소속

박차양
의원

Q. 의원님만 알고 계신 지역의 명소나 자랑거리를 소개해주세요.

A. 저는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7개의 읍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지만, 감포·양북·양남 3개 읍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천연기념물 제 536호'로 지정된 경주 양남의 주상절리는 제주도 주상절리와 달리 누워 있거나, 기울어 있거나, 부채꼴 등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주상절리가 곳곳에 즐비하고 있어 여름철 휴양지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Q. 이곳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요?

A. 양남 주상절리 일대에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고운 모래가 펼쳐진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출렁다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에 '출

렁~'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출렁!' 출렁다리를 걷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산책로 옆 해변에는 모래와 몽돌이 섞인 백사장 을 거닐 수 있는 관성솔밭해변이 있어 이곳에서 밤하늘의 수놓은 아름다운 별을 관찰하며 여름 밤 잊을 수 없는 추억 하나를 새기고 왔습니다.

Q. 앞으로 경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A. 경주는 문화·관광·역사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경주의 특색 있는 공간이 어딘지, 경주의 주상절리는 어떤 곳인지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경주의 무한한 공간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일 수 있게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오래된 이야기가 이어져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다

농수산위원회
포항 /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의원

Q. 포항 출신으로서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A. 제 고향이 장기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면에 서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보냈고 장기읍성으로 소풍도 많이 갔었습니다. 장기읍성에서 보이는 산을 넘어가면 동해바다인데 왜구가 침략해오는 것을 막아주던 제1관문이 바로 장기읍성입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축성되었지만, 읍성 높은곳에서 바라보는 저지대 농경지와 그 뒤로 펼쳐지는 바다의 풍광은 그 어떤 관광지보다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린 시절 추억이 겹쳐져 더욱 애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Q. 그 외에도 추천할만한 관광명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조선시대 장기는 유배지였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을 비롯한 220여 분의 관료 학자들이 이곳에

유배되어 생활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선500년사에 있어 유배제도는 사상과 문학의 새로운 토대가 되기도 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목민심서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역사와 지리적 특성, 문화적 콘텐츠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다면, 장기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일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예전에 읍성 아래에는 '헌내뜰'이라는 큰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을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 지역구가 오천, 장기, 구룡포, 호미곶까지 4개 읍면인데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씩 더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청 및 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역사로 현재를 비추다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건설소방위원회
칠곡 / 더불어민주당

김시환
의원

Q. 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반드시 가봐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의 승리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칠곡군의 역사 속에 깃든 호국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설립한 곳이 바로 칠곡호국평화기념관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린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것 있으신가요?

A. 지금은 올바른 윤리관이 개인의 도덕적인 덕목을 넘어서 개인의 능력과도 연관 지어지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청렴하

지 못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애국정신도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개인의 부정과 부패는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Q. 더 잘사는 칠곡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A.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야말로 칠곡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다면 기존 물류산업 뿐 아니라 공항 배후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은 결국 새로운 산업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로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경주, 신성장동력으로 힘차게 도약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 국민의힘

박승직
의원

Q. 지역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해주세요

A. 경주를 말하면 흔히들 '신라 천년 역사의 도시'라고 하지만 이 짧은 말로는 경주를 온전히 설명하기에 한참 부족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일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밀집해 있습니다. 첨성대, 동궁과 월지, 월성, 황룡사지, 분황사, 남산과 명활산성지구를 포함한 100여점이 넘는 문화재가 있으며 미추왕릉, 태종무열왕릉과 법흥왕릉, 김유신장군묘 등 다수의 고분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경주 역사의 중심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주고, 후대에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저와 같은 선출직이 가지는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Q. 경주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은?

A. 역사적인 명성과 뛰어난 관광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분야도 있습니다. 형산강 상류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딸기, 미나리 등의 과일과 채소,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양송이버섯 등 뛰어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신경주역이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적의 교통입지와 양질의 관광인프라, 고품질 농산물까지. 이러한 특징점이 융·복합 된다면, 4차산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가능성이 단지 가능성에서 머물지 않도록 지역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3 골목 이야기에서 소통의 열쇠를 찾다

박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비례대표 / 국민의 힘



박의원's
Pick!



수원시 발행

<마을 공감, 골목에서 소통하다>



처음 먹은 마음을 일러 초심(初心)이라고 하지요. 의회에 입문할 당시의 초심을 떠올릴 때면 이 책을 꺼내들곤 합니다. 의원생활을 시작할 무렵 평소 가까이 지냈던 지인이 '소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책을 선물해 줬어요. 수원시에서 발행한 <마을 공감, 골목에서 소통하다>라는 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마을르네상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경산시에도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등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경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현안을 접목시켜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나갔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도시재생, 사람 간의 소통,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등 재미있는 사례를 읽어나가며 다양한 가치들을 되새겨볼 수 있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한 권 더 소개하고 싶어요. 새로운 조직에서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이유 없이 미움 받는 등의 어려운 상황들과 마주하게 될 때, 타인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면 상처받기 십상이지요.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

고즈넉한 한옥에서 초심을 찾다

김영선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의원's
Pick!



고택 펜션
<심토재>



의정생활을 하면 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조급해진 마음을 다잡아 주는 장소가 '심토재'입니다. 보통 집을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심토재를 처음 봤을 때 한옥이 가진 특유의 곡선과 푸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살아가는 마음 한편의 무엇을 채워주는 느낌이랄까요? 발전만을 위해 쉬지 않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옛것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심토재는 도심 속에서 옛것이 가지는 정취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모임이나 연설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리타분한 것도 아니에요. 옛것에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현대에 맞춰 과거에서 배울 건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현대 상황에 맞도록 적용해가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의정에 임하기 위해서 심토재에 들어서 마음속에 온고이지신을 다시금 새기고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

의원발의 조례

01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병직 의원



제정 이유

▷ 경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여건, 전망 등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사업을 규정함
-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및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와 업무를 규정함

02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대일 의원



제정 이유

▷ 경북도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가 경상북도 특화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지사는 1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간사 등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03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철구 의원



제정 이유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 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
- 도지사는 시·군, 공사·공단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04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남영숙 의원



제정 이유

▷ 경북도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 별로 최소 기준보조율 범위를 정하는 규정과 도비 보조사업에 시·군비의 부담의무 조항을 신설함

주요 내용

- 시군에 교부하는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

05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태춘 의원



개정 이유

▷ 자립지원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립 지원사업에 자립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도지사는 3년마다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에 자립수당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문화·예술·체육 지원 사항을 신설함

06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김하수 의원



개정 이유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하도록 함
-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함
- 도지사는 방역관을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07

경상북도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박채아 의원



제정 이유

▷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지사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대회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08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동업 의원



제정 이유

▷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
-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공정관광 육성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 경상북도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09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영환 의원



제정 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한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을 농림어업용 취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규정함

10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권광택 의원



제정 이유

▷ 경상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사업, 민간정원의 개방 등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을 규정함
-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위해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조성,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함양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11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제정 이유

▷ 도내 고등학교 고3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 농산물복지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수험생과 졸업예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구매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환권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교환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전시 등의 농산물소비촉진 활동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2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개정 이유

▷ 스마트팜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이에 수반되는 수산물의 용어를 추가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시군지원 및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추가함

주요 내용

-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
-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13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남진복 의원



개정 이유

▷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집행 및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주체와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른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의 주체를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원금 신청 접수, 집행 주체와 전산매표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주체를 울릉군수로 하고,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울릉군수를 포함하도록 함

14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진욱 의원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주요 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으로 규정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15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영길 의원



개정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적용 및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점용료 80% 감면 신설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항목별 사용수량에 대한 연액 사용료를 각각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로 변경함(사용료 변동없음)

16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조현일 의원



제정 이유

▷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경상북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중독 예방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17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대표 발의
이종열 의원



개정 이유

▷ 도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기관 및 시설별의 연구개발장비 및 서비스의 통합 DB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을 규정함

18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윤승오 의원



제안 이유

▷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수행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전담사무국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회의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등을 위해 15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 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함

19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철구 의원



제안 이유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인력 및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정비요원 확보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접속도로 제한규정과 사무실 위치에 대한 단서규정을 완화함

20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나기보 의원



제안 이유

▷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상북도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와 시장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교육 및 연구,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1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채아 의원



제정 이유

▷ 최근 문화예술의 창작 및 향유 기반조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2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판수 의원



제정 이유

▷ 안전한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산림휴양 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에 관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숲길의 보수 및 관리,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3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제안 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전문인력화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인정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이주 여성농어업인과 가족공동경영협약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가족공동경영협약 규정을 신설하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체계 등을 규정함

24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방유봉 의원



제안 이유

▷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산림조성이나 수종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 조성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양봉 관련 시설의 설치, 꿀벌 신제품 육성·보급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5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최병준 의원



제안 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함

주요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항목 중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함

2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이재도 의원



제안 이유

▷ 도내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자연친화적
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5년 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숲 조성 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성 확보, 기능성 실현,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등 학교숲 조성 기준에 대해 규정함
-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 수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수목 처분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돕도록

김득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구미 /
더불어민주당

Question #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김득환 의원 저도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전염병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학원은 대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 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저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및 소상공인분들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Question #2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득환 의원 기존 조례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형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불분명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 자금지원에 기존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준다면,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피해비용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비용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김득환 의원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재확산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어, 코로나19의 출구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점점 더 가중되는 어려움에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을 받아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도정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박영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문경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조례 소개

박영서 의원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먼저 구입해 달라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회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사태로 마스크 판매가 늘어났는데 마스크도 경상북도에서 만든 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물품이 모자란다면 다른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둔 조례입니다.

Question #2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박영서 의원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기업에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과 기업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이는 지역의 고용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늘어난 고용만큼 지역의 소비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Question #3 앞으로 만들고 싶은 조례안이 있다면

박영서 의원 치매 전문 연구 병원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치매 전문 병동을 통해 연구와 치료를 병행하고 병원안에 공원을 조성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병원만으로는 환자들의 치료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연구와 치료를 병행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치매연구병원과 테마공원을 함께 조성해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경상북도에 조성하게 된다면 치매관리의 전환점이 되는 대표사례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

QnA

묻고 들으며 답하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영양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종열 의원 근래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시스템 적으로 내재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대에만 초점을 맞춰 분노하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보육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종열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관리와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영유아에 대한 보호,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북지역도 소아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어떤 성과들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종열 의원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부모님만큼 믿고 따르는 보육교사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면, 아이의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니 만큼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또한 보육교사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과 아동이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힘쓰겠습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남이 아닌 ‘내가 바꾸는 세상’

박태춘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Question #1 「경상북도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박태춘 의원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와 격리되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나오게 되어,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2017년도에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상 아동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년마다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자립지원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박태춘 의원 소위 위기 아동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주로 미성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갓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보호 대상아동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다시금 길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Question #3 후반기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박태춘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기술이 발전해 나갈수록 개인과 기업의 보안위험도 커지고,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기업도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로 인해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도 의원연구모임인 ‘산업보안정책연구회’를 만들어 지역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법,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대구·경북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전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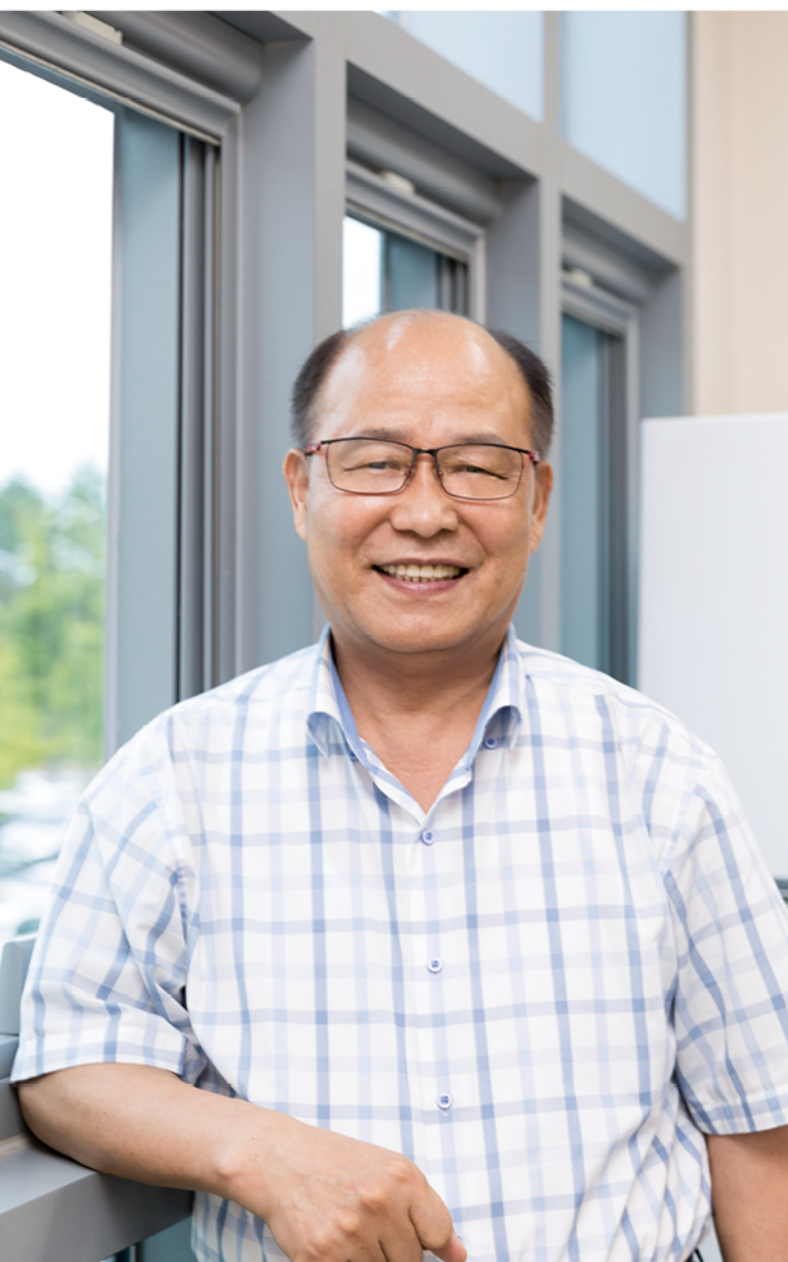
QnA

묻고 들으며 답하다

더 아름다운 숲으로 더 안전한 숲길로

박판수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김천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박판수 의원 요즘은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숲길을 찾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향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도 예전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새로운 숲길을 만드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예전에 설치한 등산로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가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숲길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2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박판수 의원 본 조례는 도내 등산로 및 숲길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산림은 물론 관련 안전시설의 훼손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리 계획과 시설운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도지사가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숲길 운영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숲길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박판수 의원 최근 숲이 주는 치유효과가 부각되고 있고, 이에 더해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전한 여가와 치유를 목적으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숲을 찾기 전, 먼저 숲이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숲의 환경도 보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함께 상생하는 내일을 바라다

윤승오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비례대표 /
국민의힘



Question #1 「경북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한 이유는?

윤승오 의원 2004년도에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되었지만 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매년 3~4회 열리지만 상설 사무국이 없어 전문적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타 시·도에서는 이미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노사민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노사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사무국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Question #2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승오 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협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노사는 노사대로 요구사항이 있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관으로, 사무국은 그 중심에서 이들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이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국비매칭 펀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윤승오 의원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분쟁이 장기화 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된다면 노사민정 업무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이는 결국 노사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서로 상생발전함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도 함께 견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세대를 잇는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이수경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성주 /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 발의한 조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이수경 의원 제가 승계농업인 출신이라 승계농업인이 겪는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분들과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승계농업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긴 하지만 소극적입니다.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승계농업 지원자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좀 더 체계를 갖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uestion #2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경 의원 승계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부모 간 소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승계농업인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부모님 세대가 추구하는 농사 방식과 내가 추구하는 농사 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이수경 의원 미래의 농업은 힘들고 가난한 직업이 아니라 가업으로 이어가는 유망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안타깝게 떨어진 청년농업인 중에서 승계농업인 출신 청년이라면 이 조례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농업경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농업인이 가업으로 농업을 승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도와 시군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다!

남영숙 의원

농수산위원회 / 상주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율의 수준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내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율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도비 보조율이 턱없이 낮아 도의 부담을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도비 보조율 결정 기준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5분발언·도정질문을 통해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 30% 미만의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보조사업 분야별 보조율 기준을 설정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Question #2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영숙 의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 보조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비 부담이 30% 미만인 도비 보조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져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도비 보조율 30% 미만으로 추진해왔던 수많은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필요정도를 따져 꼭 필요한 사업들만 남길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집중과 선택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도비사업의 형평성·적정성 모두 개선될 것이며, 전국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QnA

묻고 들으며 답하다

새로운 기회가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군위 /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에 발의한 조례안중 가장 신경 쓴 조례안이 있다면?

박창석 의원 지금 농촌에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농업이 강도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도시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농부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부들로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강도 높은 노동 여건은 젊은 농부들과 함께 스마트팜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업승계농업인이 부자농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번에는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창석 의원 농촌은 수확철만 되면 부족한 일손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급한 일손을 구하다보니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촌일손으로 활용하며 품삯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농사일도 계획적이지 못하며 외국인 노동자 관리도 불안합니다. 차분히 농촌 수확철 등 인력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원만한 대우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농촌이 그들에게 소중한 일자리 파트너로 발전한 것입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박창석 의원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은 소득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회가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은 농촌 여건에 맞게 계획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여 고령화를 극복하고 강도 높은 노동여건은 젊은 농부들의 스마트팜 농업으로 해결하고 소득이 부족한 농촌은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등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부자농촌으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차별화된 교육 실현

정세현 의원

교육위원회 / 구미 /
더불어민주당



Question #1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는?

정세현 의원 학교에서 양질의 수업을 듣더라도 학교 밖으로 나서면 학교 교육과 이어진 무언가가 없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일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특별할 것도 없는 작은 섬마을에서 고위공직자, 의료인,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사람 모두가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이, 마치 마을전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니다.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경상북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uestion #2 이번 조례 발의로 기대하는 성과

정세현 의원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결국 주변의 관심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 할 수 있다면, 향후 아이들의 정서나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밖 배움터 조성, 학습망 구축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겠지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개선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식기반이 마련된다면 그 변화는 느리지만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Question #3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세현 의원 일반적으로 입법정책관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 토론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하나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어찌보면 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민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조례에 담기위해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아카이브 III

선거제도 개혁으로 도민 참여를 높이다



〰

지방자치는 도민들의 관심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6, 7, 8대 경상북도 도의회는 내부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도의회의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은 시기였다. 먼저 피선거권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다. 또한, 1인 2표제를 시행함으로써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선거연령을 하향해 도민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 피선거권 완화를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 •

제6대 지방의회(1998~2002)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임기 4년(5대 3년)의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다.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축소·조정하였고,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거주요건을 선거일 전 90일 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6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5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54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6명의 비례대표의원 등 총 6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8년 7월 9일 개원하였다.

전반기(1998.7.9.-2000.7.6.)
장성호 의장, 최원병·류인희 부의장

후반기(2000.7.7.-2002.6.30.)
류인희 의장, 이상천·이철우 부의장

전국 시·도의원 당선자 현황

도별	총의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의원 수	690	104	49	29	29	17	17	17	97	47	27	36	38	55	60	51	17

단위: 명

- 1인 2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제도 활성화 •

제7대 지방의회(2002~2006)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명부순위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경상북도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로 23개 시·군 51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51명과 비례대표 의원 6명, 총 5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02년 7월 9일 개원하였다.

전반기(2002.7.9.-2004.7.8.)

최원병 의장, 김선중·정무웅 부의장

후반기(2004.7.9.-2006.6.30.)

이철우 의장, 손규삼·이정백 부의장

전국 시·도의원 당선자 현황

도별	총의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의원 수	682	102	44	27	29	19	19	19	104	43	27	36	36	51	57	50	19

단위: 명

경 제 8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축하
 2006. 7. 7



•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도의회 활성화 노력 •

제8대 지방의회(2006~2010)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말 대통령 선거와 2004년의 4·15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여러 번 개정된 정치 관계법과 선거 관련법의 적용을 받았다.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영주체류 3년 이상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그 외에 모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허용,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기초의원 제도 신설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50개 선거구에서 50명의 지역구의원과 5명의 비례대표의원 등 총 5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06년 7월 7일 개원하였다. 후반기 부의장에는 이상효 의원(경주)과 이용석 의원(구미)이 각각 선출되었으나, 이용석 부의장 사망으로 김응규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김응규 부의장 의원직 사퇴로 송필각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반기(2006.7.7.-2008.7.3.)

이상천 의장. 방대선·안순덕 부의장

후반기(2008.7.4.-2010.6.30.)

이상천 의장, 이상효·이용석·김응규·송필각 부의장

전국 시·도의원 당선자 현황

도별	총의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의원 수	738	106	47	29	33	19	19	19	119	40	31	38	38	51	55	53	41

단위: 명



가을밤, 아름답게 물들다 경북 야경명소



◦ 애틋한 사랑을 간직한 안동 월영교 ◦

📍 경북 안동시 상아동 569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깃든 다리, 월영교(月映橋)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과 삼을 엮어서 한 켤레의 미투리를 지은 원이 엄마의 숭고한 사랑을 모티브로 했다. 다리 가운데 팔각 월영정(月映亭)을 앉혀 두고 양쪽에 두 켤레 미투리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띤다. 해가지면 월영교에 조명이 켜지고, 물에 비친 반영까지 더해져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진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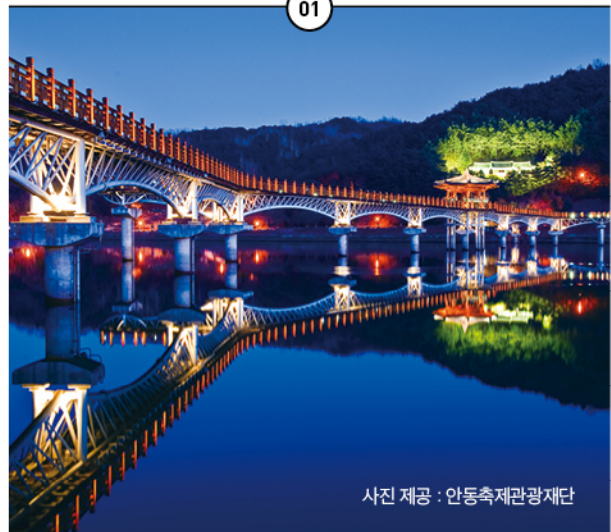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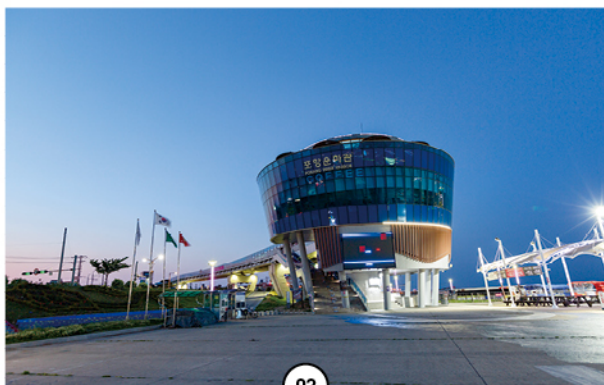


사진 제공 : 안동축제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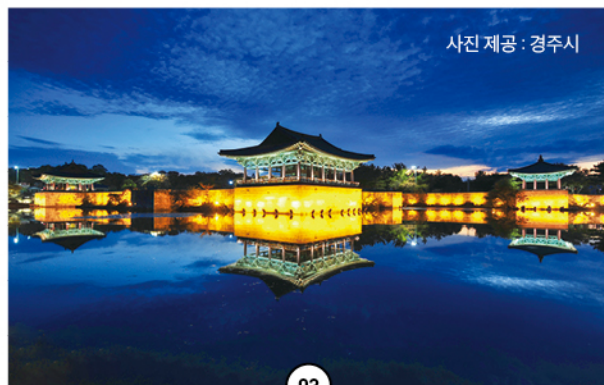


02

◦ 밤바다 위를 수놓다 포항 영일대 ◦

📍 경북 포항시 남구 행복길75번길 11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영일대. 포스코와 영일만이 보이는 이곳은 야경으로 특히 유명하다. 영일대에서는 은은한 빛을 내는 영일정과 화려한 포스코 야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영일정은 영일대 야경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전망대로 어두운 밤하늘과 밤바다를 빛내는 해상누각이다. 시원한 밤바다와 함께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야경을 보고 싶다면 포항 영일대를 추천한다.



03

◦ 달이 비치는 연못 경주 동궁과 월지 ◦

📍 경북 경주시 원화로 102 안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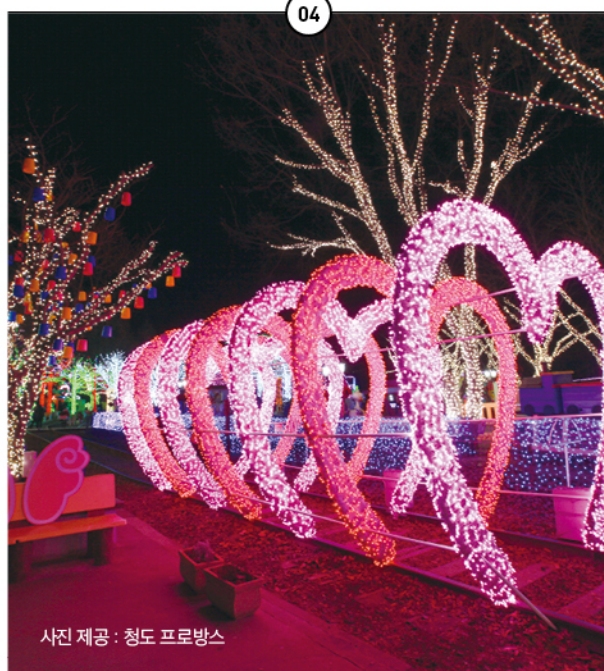
고요한 가운데 연못 가장자리를 걸어보는 밤산책은 어떨까. 경주 동궁은 신라 왕궁의 별궁터로, 다른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공간으로 사용됐다. 월지는 연못 가장자리에 굴곡을 만들어서 좁은 연못을 넓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넓고 아름답다. 연못 수면에 비친 빛들이 달과 같다고 해서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월지. 밤이 되면 나무 사이사이로 비치는 불빛들이 월지의 호수에 반영이 되어 더욱 매력적이다.

◦ 화려한 빛의 향연 청도 프로방스 ◦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272-23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낮이 흐르고 저녁이 되면 색다른 환경이 펼쳐지는 곳, 청도 프로방스다. 사계절 빛 정원, 프로포즈 가든 등 오색찬란한 불빛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테마마다 색다른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어 어디서든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저녁에는 음악에 맞춰 불빛들이 반짝이는 일루미네이션 라이팅쇼가 진행된다. 오늘도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사랑스러운 추억들이 청도 프로방스에 새겨진다.

※ 운영 및 입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04

사진 제공 : 청도 프로방스

똑똑~ 잘 있니? 나의 마음아!

마음 건강 **똑** 부러지게 챙기자



코로나 블루_마음 건강 챙겨주는 정부 정책

코로나19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일상에 지쳐가는 요즘, 우리의 마음만큼은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울하게 혼자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금물! 집밖으로 나가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건강한 회복을 위해, 마음 건강은 단단하게!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재난이나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회복지원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시·도 재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응 여부 및 개입 정도를 판단하여 재난 상황정보 및 피해규모, 심리회복지원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그 후, 대한적십자사 초기 재난구호 서비스 제공과 연계하여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최대 3회기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동의 후 전문기관 치료 연계가 이어진다.

- **지원대상** _ 재난경험자
- **지원내용** _ 심리적 피해 완화 상담 3회기
- **지원신청** _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트라우마 회복 패키지 •

재난 후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다. 초기면담, 마음건강심사 등으로 마음건강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약 1~6개월 정도 불안, 긴장감 완화를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종결 후 그동안 변화된 나의 회복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지원대상** _ 재난을 경험했거나,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이후,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지원내용** _ 마음건강 심층평가,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모니터링
- **지원신청** _ 국가트라우마센터 > 트라우마 회복 패키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제도**다. 근로자, 관리자, 조직 세분화하여 각각에 효과가 부여되어,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지원대상** _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 회원 가입한 후 상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_ 직무 스트레스, 정서 문제 등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 상담 가능
- **지원신청** _ 근로복지넷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 전화 1388 •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중독 청소년, 가족·친구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과 함께 청소년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_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_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전화 상담
- **지원신청** _ 1388 전화 상담, #1388 문자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88 친구 맺기 후 상담, www.cyber1388.kr에 접속 후 채팅방 참여

다른 그림 찾으며 경북도의회 자세히 보기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주세요.
11월 30일까지 참여해주신 분 중 10분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문자, 카카오톡 참여_010.8565.6842

※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여름호 독자참여 당첨자

최현* (4272)	임병* (7258)
도경* (4294)	이세* (0001)
이혜* (4725)	김진* (5405)
홍정* (8580)	



[안동 봉정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0. 11. 9. ~ 22.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보기간

2020. 10. 1. ~ 10. 31.(1개월)

제보방법

- 팝업창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yukuai1201@korea.kr), 팩스(054-880-5169), 우편(36759,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으로 제보
- 문의사항 : ☎ 054-880-5172



경상북도의회

의정안내

• 본회의 방청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상으로 방청신청 후 방청인원 안에서 방청가능
T. 054-880-5126
- 상세안내 의회 홈페이지 방청안내 참조
(council.gb.go.kr/cms/tour)

• 의회견학

- 도내 학생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생에게 의회견학 안내 / 견학신청은 유선상으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견학일 7일 전까지 신청
T. 054-880-5126

• 의회 소식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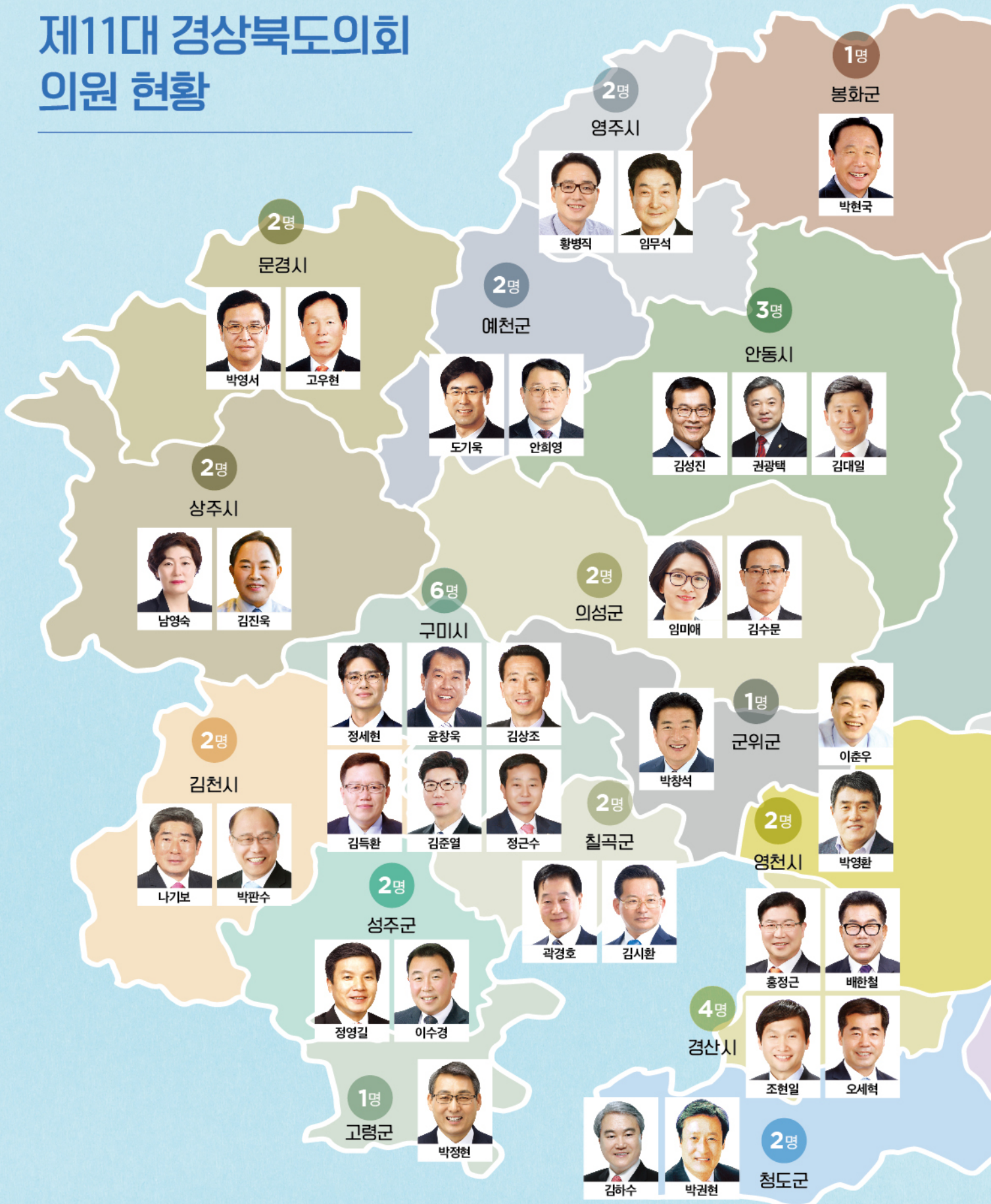
-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의회소식지 신청
홈페이지 - 구독신청(council.gb.go.kr)
※ 구독 취소 시 경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연락(054-880-5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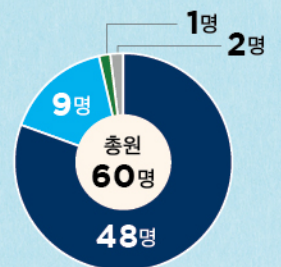
• SNS 의회 알림

- 페이스북
경북도의회(www.facebook.com/gbcouncil)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경상북도의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5126 Fax. 054-880-5129
<http://council.gb.go.kr/>